

# 세계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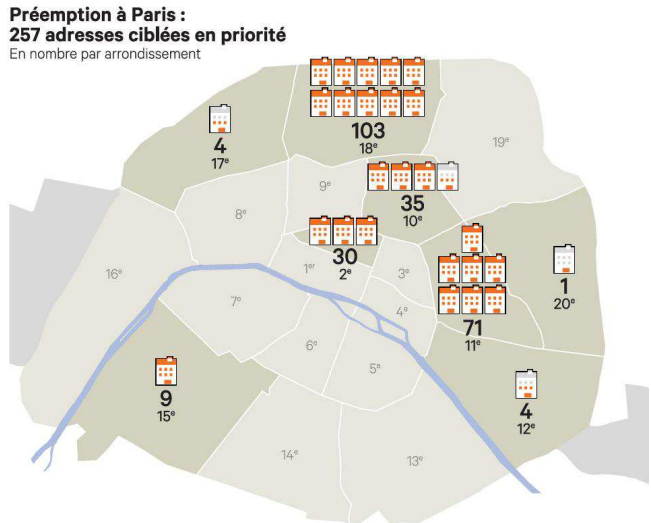
헤드라인뉴스	1	‘하위중산층 도심주거권 보장’ 우선매입지 257곳 선정	파리
문화·관광	4	‘지역의 문화를 세계로’ 교토 문예 프로그램 2020 수립	교토
산업·경제	6	구직자에게 취업면접을 위한 맞춤형 복장 조언	파리
	10	유희 부동산의 리노베이션으로 도시형 비즈니스 집적 추진	기타큐슈
사회·복지	14	시니어 세일즈 등 4개 ‘고령자 직업 모델’ 선정	도쿄
	17	관계기관 역할 명기한 ‘에볼라 대응 매뉴얼’ 작성	도쿄
환경·안전	20	‘테러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 대비’ 적응유연한 도시전략 수립	멜버른
도시교통	22	“여러 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을”	미국
정보·기타	25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뉴욕

## ‘하위중산층 도심주거권 보장’ 우선매입지 257곳 선정

프랑스 파리市 / 도시계획·주택

- 파리市는 12월 중순에 신년 도시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심 주거지역의 고급주택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과거에 여러 계층이 뒤섞여 살던 도심 주거지역에 점차 부유층이 모여들고 빈곤층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이 정책은 도심 고급주택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됨.
- 대규모 주택공급계획 중 하나로 파리市는 현재 고급주택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내 257개 번지(8천여 세대의 아파트에 해당)를 소형 임대주택 후보지로 선정함. 이 주소지는 매각 시 1차로 개인에게 매매가 금지되며, 파리市가 후보지의 우선매입권을 갖게 됨.
  - 257개 주소지에 속하는 아파트를 매각하려는 경우 법에 따라 반드시 먼저 市에 매입을 제안해야 함.
  - 市는 시장가격에 따라 이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이지만, 가격은 매각자가 아니라 市가 정하게 되어 있음.
  - 주택소유자가 제시된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인 부동산업자에게 다시 가격책정을 요청하거나 매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 하지만 市에서 매입을 포기하기 전에 주택소유자는 다른 개인에게 주택을 팔 수 없음.
- 파리市는 이 지역에 고급주택 건설을 억제하여 저소득·중간소득층이 임대할 만한 주택을 유지시키고 소형 임대주택을 확대시키는 방향을 제시함. 이 정책은 기존 법률 안에서 하위중산층의 도심지에 대한 주거접근권을 보장해 주고, 부동산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 후보지에 주로 포함된 파리 북부와 동부(메닐몽탕, 마르트 언덕의 북쪽 자락, 바스티유의 동쪽 끝 등)는 과거 노동계급의 주거지였으나 현재 이들이 밀려나고 있는 지역

임. 후보지 목록에는 중산층이 투입하고 있는 서민층 거주지역이 포함되어 있음. 인기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 등이 자리한 오베르캄프 거리(Rue Oberkampf), 장 피에르 탕보 거리(Rue Jean Pierre Timbaud)와 샤론 거리(Rue de Charonne) 등임.



파리시의 257개 선매후보지 지도(파리시에서 선정한 목록에 따라 Les Echos지에서 작성).  
굵은 글씨는 구(區)별로 선정된 건물 수이며, 가는 글씨는 각 구의 번호임.

- 주택 담당 부시장인 이앙 브로사트(Ian Brossat)는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도시 주민구성의 다양성과 주택복지의 측면에서, 파리시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 그리고 시장 논리에 반대함. 또한 이 정책은 파리시의 동부와 서부 사이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사회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발전시킬 예정임.”
- 만약 파리시가 257번지, 8,000여 채의 후보주택을 시장가격대로 매입한다면, 8억 5천만 유로(약 1조 1306억 원)가 매입비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그러나 사실상 이 정책의 목적은 후보주택을 매입하기보다 주택 매각 시 市에서 우선권을 갖는다는 데 있음.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임기 중에 불과 100여 채의 아파트만이 매입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 정책의 핵심 아이디어는 파리시가 해당 주거지역의 사

회통합 정도를 모니터하고 계층 간 주거분리를 막아 서민층이 밀려날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있음.

- 파리는 이 정책의 목적이 주택소유자의 매매나 재건축으로부터 주민, 특히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함.
  - 부동산 업계는 이 정책이 이미 둔화된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까 우려하고 있음. 현 시장의 부동산 관련 조치로 파리의 부동산 임대료는 2014년 상반기에 2.8%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냄. 부동산 업계는 市가 선매후보지의 매입가격을 정할 경우 주택 소유자는 시장가격 이하로 팔 수밖에 없다며,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함.
  - 후보지가 가장 많이 포함된 파리 18구의 구청장은 그동안 파리시 정책에서 누락되고 불리한 대우를 받아온 서민층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며 환영함.
- 파리의 '도심 주택선매권 정책'은 향후 6년간 안 이달고 시장이 주도할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의 일부임. 파리는 매년 새로 짓는 1만 세대 아파트 중 70%를 소형 주택으로 지을 예정이며, 총 예산은 100억 유로(약 13조 2천억 원)임. 이 계획을 위해 업무지구들이 주거지역으로 전환될 것이며, 공공건물의 높이도 제한될 것임.
- 파리는 살기 좋고 다양성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발표함. 이 계획의 효과를 알려면 10여 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주민들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도시 행정부의 노력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음.

<http://www.citylab.com/housing/2014/12/paris-wants-to-keep-central-neighborhoods-from-becoming-ghettos-for-the-rich/383936/>

<http://patrimoine.lesechos.fr/patrimoine/immobilier/0204026369085-votre-logement-peut-il-etre-preempte-la-liste-des-adresses-visees-a-paris-1076436.php>

# 문화·관광

## ‘지역의 문화를 세계로’ 교토 문예 프로그램 2020 수립

일본 교토市 / 문화·관광

- 교토市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교토의 문화 예술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교토 문화 예술프로그램 2020(가칭)’을 수립하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 중임. 市는 ‘교토 문화·예술도시 창생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의 발생에 대응해 왔으며, 최근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비롯해 ‘2019 럭비 월드컵’, ‘2021 칸사이 월드 마스터스 게임즈’ 등의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함.
- 市는 이 프로그램에 교토의 문화 예술을 담당하는 다음 세대의 육성, 숨 쉬는 문화를 지키고 살리며 창조, 교토 문화의 매력 발산이라는 3가지 방침을 정함. 또한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을 7개의 시점으로 정리함.

### 교토 문화 예술프로그램 2020(가칭)

3개의 방침	7개의 시점
다음 세대 담당자 육성	1. 키우다: 일본의 문화·예술의 계승과 창조를 짊어질 다음 세대를 육성 (주요사업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전통 문화·예능을 전승</li><li>· 일본의 문화·예술을 견인하고 세계를 매료시킬 창조 환경의 정비</li><li>· ‘국립교토전통연예문화센터(가칭)’ 설립과 선구적 사업 실시</li><li>· 현대 미술과 음악 등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교육 및 워크숍 개최</li><li>· ‘배우는 먹거리 교육 커리큘럼’을 통한 교토의 먹거리 교육 추진 등</li></ul>
	2. 달성하다: 전국의 전통적 문화 예술의 승계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달성 (주요사업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립교토전통연예문화센터(가칭)’ 설립과 선구적 사업 실시</li><li>· ‘미래를 연결하는 역사적 건조물의 계획적 수리 사업’ 시행</li><li>· 문화부 문화예술창조도시진흥실의 기능 확충을 위한 지원</li><li>· ‘세계문화유산’ 지역협력회의 회장도시로서 국내의 세계문화유산 소유 지자체와의 제휴와 보호·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li><li>· 2014 세계문화유산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교토 선언’에 근거하여 세계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위한 대응을 추진</li></ul>

3개의 방침	7개의 시점
숨 쉬는 문화를 지키고 살리며 창조	<p>3. 알다: 시민에 의해 교토의 생활문화를 재발견 (주요사업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전통 문화·예능을 전승</li> <li>· '지역에 뿌리내린 생활문화'를 통한 도시정비의 추진</li> <li>· '전통문화체험의 날(가칭)' 등 전통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li> <li>· 교토의 음식 문화 계승 및 보급</li> <li>· '교토·일식 문화추진회의(가칭)'를 교토부 등과 연계하여 설립</li> <li>· 교토를 수놓는 건물과 정원 제도에 의한 역사적 자산의 유지·계승 및 활용</li> <li>· 아이부터 어른까지 교토 역사·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li> </ul> <hr/> <p>4. 지키다: 역사문화유산이 축적된 도시 교토의 계승 발전 (주요사업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를 연결하는 역사적 건조물의 계획적 수리 사업' 실시</li> <li>· 市 자체 '교토 유산 제도' 창설 및 '일본 유산제도' 활용으로 매력을 발산</li> <li>· 기온 마츠리 등 지역의 뿌리가 되는 축제나 전통 행사의 계승 지원</li> <li>· 역사적인 거리 경관의 보존 및 재생 등</li> </ul> <hr/> <p>5. 활용하다: 교토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산의 활용과 창조 (주요사업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문화체험의 날(가칭)' 등 전통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li> <li>· 역사적 기술과 기법, 풍부한 감성과 숙련된 기능을 계승하는 인재를 육성</li> <li>· 전통 산업 활성화와 판로 개척</li> <li>· 전통 예술 공연 등과 연계된 악기·용품에 대한 상담 및 판매</li> <li>· '전통 산업의 날'을 통한 전통산업 방안 제안</li> <li>· 교토 국제 만화 박물관, 교토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어 등의 제휴</li> </ul>
교토의 매력 발산	<p>6. 넓히다: 교토가 중심이 되어 일본의 문화 예술을 국내외에 알림 (주요사업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관광 정보의 일원적 파악, 입장권 판매 등을 위한 온라인시스템 구축</li> <li>·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 국제적인 축제 개최</li> <li>· 교토의 문화·예술과 전통 산업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안내소 설치</li> <li>· 스포츠 행사와 관련된 문화·예술을 연계하여 제공</li> <li>· 교토를 찾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정비</li> <li>· 자매 도시와의 교류, 국제모임 등으로 교토 문화·예술의 해외 전파</li> <li>· 교토관 문화적 매력 강화</li> </ul> <hr/> <p>7. 모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연관된 교토에 사람이 모임 (주요사업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문화·예술을 견인하고 세계를 매료시킬 창조 환경의 정비</li> <li>·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 국제적인 축제 개최</li> <li>· 시민·NPO·기업·대학 등에 의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 및 지원</li> <li>· 아티스트 레지던스 강화 등을 통해 문화·예술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환경 정비</li> <li>· 교토 고도 인재교류거점(가칭) 설치</li> <li>· 빈집 등을 활용하여 아티스트와 만화가 등이 교토에 모일 수 있도록 환경 정비</li> <li>· 시어터 교토, 교토市 미술관과 교토市 동물원 등의 재정비 등</li> </ul>

- 한편, 교토市는 이 프로그램을 위하여 향후 2020년까지 ‘PARASOPHIA: 교토 국제 예술제 2015’, ‘립파 400년 기념제’, ‘롬 시어터 교토 재정비’, ‘이토우 자쿠 추우 탄생 300년 기념제’, ‘세계 고고학 회의(WAC-8)’, ‘동아시아 문화 도시 2017 교토 개최’, ‘교토시 미술관 재정비’, ‘국제 박물관 회의(ICOM)의 유치’, ‘교토 예술센터 개설 20주년 기념’ 등 교토를 무대로 한 큰 행사를 개최하거나 市의 문화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



교토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산 활용과 창조방안 개념도

<http://www.city.kyoto.lg.jp/templates/pubcomment/bunshi/0000175217.html>

[http://www.city.kyoto.lg.jp/templates/pubcomment/cmsfiles/contents/0000175/175217/261209program\(gaiyou\).pdf](http://www.city.kyoto.lg.jp/templates/pubcomment/cmsfiles/contents/0000175/175217/261209program(gaiyou).pdf)

## 산업·경제

### 구직자에게 취업면접을 위한 맞춤형 복장 조언

프랑스 파리市 / 산업·경제

- 대학생 세 명이 취업 면접을 앞둔 구직자들에게 면접용 정장을 빌려주는 사회적기업

을 만들었으며, 이 기업이 올해 파리의 사회적·연대적 경제상 대상에 선정됨.

- “옷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지만, 작용은 한다”는 생각으로 파리의 명문 상업학교에 재학 중이던 세 친구, 니콜라 그라지엘, 얀 오토데, 그리고 자크-앙리 스트뤼벨은 지난 2012년 “연대의 넥타이(La Cravate solidaire, [www.lacravatesolidaire.org](http://www.lacravatesolidaire.org))”라는 단체를 창립함.
  - 이들은 파리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인 라데팡스(La Défense, 서울의 테헤란로와 비슷함)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하면서 매일 일터나 업무 미팅을 위해 잘 차려입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음. 또한 이들의 부모 역시 자녀들이 좋은 옷을 차려입고 옷의 가치를 알도록 아낌없이 투자함.
  - 이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감각을 개인적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비싼 옷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을 고민하게 됨.
  - 동시에 비싼 정장들을 옷장에만 간직하고 입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발견함. 그런 옷들을 모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취업 면접 복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단체를 만들게 됨.
- 패션 전문가들과 개인들에게 양복 조끼, 바지, 코트, 넥타이, 와이셔츠, 신발 및 액세서리를 의류회사나 의류업계 종사자, 혹은 섬유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함. 이후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구직자는 다양한 재취업 단체들의 소개를 받아 ‘연대의 넥타이’를 방문함.
  - 이 사회적기업에 오면 열다섯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조언을 해줌. 구직 전문가가 면접을 위한 이미지 컨설팅을 해주거나, 의상을 기부한 패션 디자이너가 구직자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아주기도 함.
  - 구직자가 지원하는 회사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 조언을 제공함. 구직자 한 사람당 30~45분 동안 편하고 자신감 있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제안해 줌.



- 마지막으로 실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과 한 차례의 모의면접을 거치도록 함.
- 사회적기업 ‘연대의 넥타이’의 이용자와 자원봉사자들은 크게 만족하고 있음.
- “이런 서비스는 정말 좋아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나 전문대에서는 이런 조언을 해주진 않았죠. 취업할 때나 취직한 이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이곳에서 조언을 받고 나니 면접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자신감도 늘어났어요.”
    - 레스토랑 주방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 “플레이어스커트에 정장 조끼를 입고, 그 위에 화사한 스카프를 둘러 포인트를 주면 좋아요.”
    - 남성복 제조업체를 설립한 자원봉사자 샤를(28세)
  - ‘연대의 넥타이’는 파리市에서 사회적기업 부문에 선정되면서 상근자 인건비를 지원받게 됨. 상근자는 이곳에 찾아온 구직자를 맞이하고 전문 상담원 옆에서 옷을 찾고 정리하는 등 상담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취업 면접을 앞두고 ‘연대의 넥타이’를 찾은 20세의 여성 구직자  
(사진 출처: Marc Verhille, 파리 시청)

- ‘연대의 넥타이’는 프랑스 정부와 파리市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 향후 계획으로 프랑스 전국에 이 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함.

- 이미지 컨설팅, 직장생활 조언 등 구직자들에게 실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음. 이 사회적기업을 찾아온 구직자 중 60%가 취업에 성공함.
- 지난 11월, 파리市的 ‘사회적·연대적 경제상’ 선정기업으로 뽑혀 사무직 직원을 상근으로 두게 됨.
- 파리 외에 5개의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2015년에는 500여 명의 구직자를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함. 2012년 창립 이래 ‘연대의 넥타이’를 찾아온 방문객 중에서 350명이 취업에 성공했음.
- 또한 이 사회적기업은 프랑스 정부의 청년취업지원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인 ‘참여하는 프랑스(La France s’engage)’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연대의 넥타이’의 공동 창립자 중 한 사람인 니콜라 그라지엘  
(사진 출처: Marc Verhille, 파리 시청)

- 도움을 얻은 구직자 중에는 집에 불이 나서 부인과 모든 재산을 잃고 트럭에서 살던 사람이 있었음. ‘연대의 넥타이’를 통해 재기에 성공한 그는 이제 이 사회적기업에서 자원봉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음.

[http://www.paris.fr/accueil/emploi-recrutement/la-cravate-solidaire-habille-les-demandeurs-d-emploi/rub\\_9655\\_actu\\_151318\\_port\\_23780](http://www.paris.fr/accueil/emploi-recrutement/la-cravate-solidaire-habille-les-demandeurs-d-emploi/rub_9655_actu_151318_port_23780)

## 유희 부동산의 리노베이션으로 도시형 비즈니스 집적 추진

일본 기타큐슈市 / 산업·경제

- 기타큐슈市는 과거 중공업으로 번성하였지만,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에 중심 시가지인 고쿠라(小倉) 지역이 쇠퇴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타큐슈市는 2010년부터 도시산업 진행정책인 ‘고쿠라 야모리 구상’을 계획함.
- 고쿠라 지역은 대형 제조업 본사기능의 진출, 대기업 지점의 진출, 고소득층의 진출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정체되었음. 또한 유희 부동산의 증가, 빈 상점이나 오피스의 대량 발생 등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음.
  - 야모리(家守)란 에도시대에 있던 직업 중 하나로 지역의 매니저처럼 단순한 임대주택 관리나 집세 징수부터 임차인의 생활 지원까지 다양한 잡무를 수행하는 역할임.
  - 현대판 야모리는 이 개념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사회적기업형 주택 관리사라고 볼 수 있음. 이들은 행정과 지역 주민을 연계시켜 공가·공실을 소규모 오피스 등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지역 내 창업자 및 개인사업자를 불러들여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함.
- ‘고쿠라 야모리 구상’은 ‘기타큐슈 리/이노베이션(re/innovation)’ 콘셉트로 고쿠라 중심상업지 건물에 산재한 빈 공간을 활용하고 있음.
  - 기존 상업건물과 주택을 리노베이션(수리)하여 디자인 및 컨설팅 업종을 포함한 도시형 비즈니스가 집적될 수 있도록 추진함.
  - 또한, 공원, 광장과 같은 도시 공공공간이 포함되는 유희 부동산에 리노베이션 수법을 적용하여 유희 공간을 활기차고 즐거운 공간으로 변모시키고자 함.
  - 동시에 디자인이나 컨설팅 등의 새로운 콘텐츠를 집적시키는 것으로 도심부의 고용창출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함.

- 기타큐슈시는 ‘고쿠라 야모리 구상’을 구체적이고 활동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메인 프로젝트인 ‘리노베이션 스쿨’을 포함한 5개년 실행계획을 책정함.

- 세부 계획에는 활성화 대상 지역 선정, 리노베이션 대상 건물 조사, 부동산 소유주 인터뷰 및 야모리 강좌, 사업·창업 지원, 개별 리노베이션 안전에 대한 사후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음.

**고쿠라 야모리 구상 5개년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010	2011	2012	2013	2014
야모리 구상검토위원회 설치	전체 프로듀스	전체 프로듀스	전체 프로듀스	전체 프로듀스
구상 검토·입안	안전 사후 지원	안전 사후 지원	안전 사후 지원	안전 사후 지원
대상 지역 선정	리노베이션 마치즈쿠리 추진위원회 설립 준비	리노베이션 마치즈쿠리 추진위원회 설립	·부동산 주인 계발 활동 ·공가 관련 이벤트 ·공가 조사	·부동산 주인 계발 활동 ·야모리 육성 교육 ·공가 관련 이벤트
리노베이션 가능성 건물 조사	리노베이션 특구 관련조사(제1기)	리노베이션 특구 관련조사(제2기)	·도시형 산업 육성 ·사업진흥 교육 ·기업 지원 교육	·도시형 산업 육성 ·사업진흥 교육 ·기업 지원 교육
야모리 강좌		리노베이션 지원책 발표	리노베이션 계획 평가 사업	신 지원책 검토
부동산 주인 인터뷰		市 성장전략에 리노베이션 포함	리노베이션 마치즈쿠리 센터 설립	리노베이션 마치즈쿠리 운영
후보안전 추출			고쿠라 리노베이션 마치즈쿠리 출판 계획	고쿠라 리노베이션 마치즈쿠리 출판
부동산 주인 컨설팅				
시내 3개 대학 연계				
리노베이션 심포지엄 개최	리노베이션 스쿨 (제 1, 2회)	리노베이션 스쿨 (제 3, 4회)	리노베이션 스쿨 (제 5, 6회)	리노베이션 스쿨 (제 7, 8회)
5개년 계획안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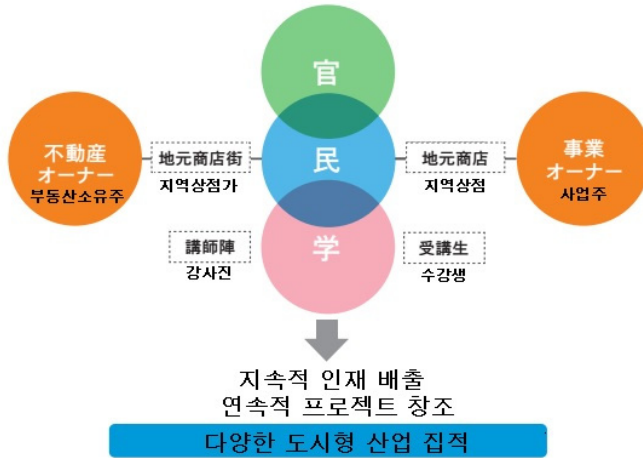
출처 : 리노베이션 마치즈쿠리 (시미즈 요시츠쿠, 2014)

- ‘고쿠라 야모리 구상’은 민간이 주도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

- 뜻 있는 부동산 소유주와 도시형 산업 관련 사업가들, 이 둘을 중개하며 수익

일부를 지역발전에 환원 사용하는 야모리 회사 등이 주요 주체로 공가의 리노베이션과 사업 실현 및 운영에도 민간 자금을 투자함.

- 개별 유휴 부동산의 물리적 리노베이션에 대한 행정 측의 보조금은 일체 없으며, 행정의 역할은 ‘공공의 장’을 제공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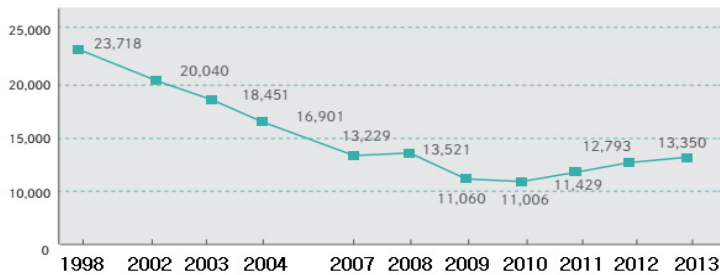
#### 리노베이션 스쿨 개요

- ‘리노베이션 스쿨’은 2011년부터 연 2회 진행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2014년에 5년 차 시행계획의 마지막 단계까지 총 7회 개최되었음.
  - 3~4일 간 전국에서 모인 수강생들이 리노베이션, 창업 등의 실무자의 지도에 따라 고쿠라 유휴 부동산의 리노베이션 및 사업계획을 세우고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사업 실현에 이루도록 하는 단기 연수 프로그램임.
  - ‘리노베이션 스쿨’에서 매회 3~4건의 유휴 부동산 활성화 안건이 제시되고 있으며, 2013년 6회까지 32개 안건이 상정됨. 그 중 9개 안건이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고, 15개 사업계획은 준비 단계에 있으며, 1개의 야모리 회사가 설립됨.



### 리노베이션 사례

- 리노베이션 스쿨 애뉴얼 리포트에 의하면, 리노베이션 스쿨을 통해 추진된 신규 사업으로 247개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고, 상점가 통행인구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2,344명이 증가함.



상점가 통행량 변화 추이(2차 출처:리노베이션 스쿨 애뉴얼 리포트,  
원 출처: 北九州まちづくり応援団・魚町商店街百万両前)

- 다음 리노베이션 스쿨은 2015년 2월 12일~15일에 개최될 예정임.
- 기타큐슈市에서 시작한 리노베이션 마을만들기, ‘야모리 구상’과 ‘리노베이션 스쿨’은 그 선도성을 인정받아 현재에는 국토교통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타 지방도시에서도 개최되고 있음.

<http://www.city.kitakyushu.lg.jp/san-kei/27200001.html>

## 사회·복지

### 시니어 세일즈 등 4개 ‘고령자 직업 모델’ 선정

일본 도쿄都 / 사회·복지

- 도쿄都의 산업노동국은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가 활약할 수 있도록 취업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 직업영역 개척 모델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는 공익재단법인 도쿄직업재단과 연계하여 기업·NPO 단체 등 고령자가 중심이 되어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2014년 12월 4일 개척 모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4개의 ‘직업영역 모델’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정된 4개의 ‘직업 영역 모델’

선정 모델	내용 및 주요 특징
고령자에게 ‘배우고’ 고령자가 ‘활기찬’ 시니어 세일즈 사업 (일본 기업 지원 센터 주식회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령층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같은 세대의 고령자가 수년에 걸쳐 축적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살린 텔레세일즈를 실시</li> <li>2. 최종 계약 업무나 PC 입력 업무는 젊은 세대의 직원이 담당하고, 고령자 직원의 업무는 ‘아날로그화’하는 등 명확한 역할 분담을 실시</li> <li>3. 일하는 시간과 요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취업 조건으로 고령자가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조성</li> </ol>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니어 사원과 현역 세대 직원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li> <li>· 서류의 아날로그화로 고령자도 무리 없이 업무 가능</li> <li>· 일하기 좋은 시간과 요일을 자유롭게 선택</li> <li>· 시니어의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젊은 층을 위한 사내 교육</li> </ul>

선정 모델	내용 및 주요 특징
중소 운송업체의 요구에 맞춘 '운행 관리자 파견' (주식회사 일본 노무 연구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도 개정에 따라 화물 운송 사업자는 운행 관리자의 임용이 의무화되었지만, 중소 사업장에서의 운행 관리자 선임은 어려운 실정</li> <li>2. 운행 관리자는 운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생 경험이 풍부한 고령자를 운행 관리자로 양성하여 각 사업장에 파견</li> <li>3. 중소 운송사업자가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li> </ol> <p>&lt;특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에 의한 운행 관리자 양성</li> <li>· 본인 희망에 따라 5시간 노동과 8시간 노동을 선택 가능</li> <li>· 정기적인 기술 연수 실시</li> <li>· 파견 드라이버의 정신 건강 계몽</li> </ul>
60대 커뮤니티 살롱 '적어도 주1회' (잇세 오가타 주식회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음식 제공 및 각종 워크숍을 실시하는 커뮤니티 살롱 '적어도 주1회'</li> <li>2. 기획이나接客 등 살롱의 운영 전반을 고령자가 담당</li> <li>3. 고령자 특유의 기획 등으로 체력과 시간이 있어도 집에서만 활동하기 쉬운 고령자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살롱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도모하고, 커뮤니티의 재생에 기여</li> </ol> <p>&lt;특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가 주체가 되어 살롱을 기획·운영</li> <li>· 요리 교실이나 음식에 관한 세미나 등</li> <li>· 공부와 놀이를 통한 지역의 아이들과의 교류</li> <li>· 젊은 엄마의 육아 상담</li> </ul>
'수공예 상자 병설 커뮤니티 카페' 사업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타지 않는 깨지지 않는 거리·스미다 지원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이 운영하는 '후지노키씨 집'에서는, 반상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정을 깊게 하여 목조 주택 밀집 지역의 방재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진행</li> <li>2. 이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세대가 교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카페와 현지 기념품 제작 및 판매하는 '수공예 상자'를 지역의 고령자들이 무리 없이 꾸준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장소로 새롭게 단장</li> </ol> <p>&lt;특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조직을 기반으로 한 취업 모델의 구축</li> <li>· 카페에서 정기적인 수제 교실 및 작품 전시 판매</li> <li>· 히키후네 지역의 기념품 만들기</li> <li>· 고령자의 지식을 활용한 짧은 강좌</li> </ul>

- 한편, 고령자 직업영역 개척 모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금 지급 : 창업이나 새로운 분야 진출 등으로 노인을 3명 이상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체 설립 비용을 최대 300만 엔(약 2,780만 원, 보조율 50%) 지원함.



- 보급 계발 : 조성 대상으로 인정된 취업 모델 사업은 결과 발표회를 하여 다른 사업장에게도 널리 홍보를 해야 함.

- 대상 취업 모델의 조건

- 창업이나 새로운 분야 진출 등으로 60세 이상 노인을 3명 이상 새로 고용
- 고용되는 고령자의 주간 근로 시간이 10시간 이상
- 취업 모델의 직원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50% 이상
- 새로운 사업이거나 일반 사업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 모델
- 안정적이고 계획성 있는 사업

- 보조금 지급의 조건

- 인건비를 제외한 취업 모델의 출시에 필요한 경비(비품의 구입, 매장 개장, 훈련 및 수강비용 등)의 일부
- 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업 모델의 시작 및 고령자의 고용을 달성. 조성 대상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1년

- 이용 절차

- 인정 신청 ⇒ 1차 심사(서류 전형) ⇒ 2차 심사(프레젠테이션) ⇒ 인증 ⇒ 보조금 임시 지불 ⇒ 보조금 정산 ⇒ 발표회 개최 및 홍보 활동

- 취업 모델의 예

- 방문 돌봄 사업소 : 돌봄 보험제도 이외의 생활 지원 서비스 부문의 설립
- 배식 서비스 : 노인 세대를 위한 배식 서비스업(납품, 조리 등)

- 이미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사회사업에서 새로운 대상을 위한 커뮤니티 카페를 만들고 고령자를 파트타임 직원으로 채용
  - 보육 : 인가 외 등의 보육 업무 확장으로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보육 보조원 고용
- 한편, 도쿄都是 고령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등도 병행하고 있음.
- 고령자를 위한 상담 창구 운용 : 도쿄 직업센터 고령자 코너, 액티브 시니어 취업지원센터, 헬로우 워크
  - 재취직 지원 세미나·취업지원 강습·기술 교육 등 : 공익 재단법인 도쿄직업재단, 재취직 지원 세미나·취업 지원 강습 등, 도립 직업능력개발센터 고령자 학교, 중년 근로자 복지 추진원
  - 고령자 고용 안정법의 개정 및 고령자 고용에 대한 보조금 사업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4/12/20oc4700.htm>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4/12/20oc4701.htm>

<http://hataraku.metro.tokyo.jp/koyo/senior/index.html>

## 관계기관 역할 명기한 ‘에볼라 대응 매뉴얼’ 작성

일본 도쿄都 / 사회·복지

- 일본에서도 에볼라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도쿄都是 에볼라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도쿄都 에볼라 대응 매뉴얼’을 12월 16일 발표하였음. 안도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도쿄 에볼라 대책 연락회의’를 설치하여 검토를 진행시킴. 기존의 ‘도쿄都 감염증 대책 수첩’을 근간으로 감염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훈련을 반영함.
- 2014년 3월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된 이후, 인근 라이베리아와 시

에라리온 및 나이지리아와 세네갈, 말리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에볼라는 세계의 이슈가 되고 있음. 감염환자와 접촉할 경우 전염 확률이 높는데다, 치사율도 50~70%에 달해 공포감이 높은 상황임.

- 매뉴얼의 취지

- 에볼라 바이러스에 특화 : 에볼라의 국내 발생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발생 단계에 따른 대응책을 기재
- 관계기관의 역할 명확화 : 보건소를 비롯해 도교 소방청 지정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역할을 명기

- 내용·요점

- 정보문의 리스트 검토: 관계 기관의 연락처 리스트 및 야간·휴일의 연락체계를 명기
- 건강감시 업무 강화 : 검역법에 기반을 둔 건강 모니터링 업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정부와 도도부 현 지사 등이 공유해야 할 정보를 기재
- 도민 상담·홍보 체제 구축 : 도민 상담과 불안 해소를 위한 홍보체제 구축
- 이송업무 재구축 : 도교 소방청, 보건소 등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 및 업무 절차의 검토, 장비의 검토(절연체를 하드 타입에서 소프트형으로 변경)
-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의 탈착 철저 : 개인 보호장비 탈착 시의 유의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동시에 적절한 분리 절차를 도해

- 매뉴얼의 주요 내용

---

都 내에서 발생한 유사증 환자에 대한 대응(11월 7일),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에서 실시한 훈련(11월 11일) 검증 등을 바탕으로 "도교도 에볼라 출혈열 대책 연락 회의"에서 그동안의 안내서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교도 에볼라 출혈열 대응 매뉴얼"을 작성

---

<p>‘도쿄都 감염증 대책 지침’(기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증의 유형별로 발생 신고의 수리, 입원 권고, 이송 등의 보건소 업무를 중심으로 한 감염증 법령에 의거한 각종 대응에 대해 기재</li> </ul>	<p>▶ ‘도쿄都 에볼라 출혈열 대응 매뉴얼’(신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볼라 출혈열 대책에 특화 : 에볼라 출혈열의 국내 발생에 대비해 민반의 태세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발생 단계에 따른 대책을 기재</li> <li>· 관계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li> </ul>
그 동안의 매뉴얼	신규 매뉴얼의 내용
<p>정보 연락 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학 조사, 방역 지원, 검체 대응 등의 각종 대응을 수행하는 때문에 관계기관에서의 정보 연락선에 대한 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연락 리스트의 재검토</li> <li>· 정보 연락의 신속함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의 연락처를 목록화</li> <li>· 야간·휴일의 연락 체제를 명기</li> </ul>
<p>검역소와의 정보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 사례 등의 신고에 대해 검역소에서 보건소에 법령 규정 사항의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감시 업무 강화</li> <li>· 검역법에 따른 건강감시 업무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 건강 감시 대상자가 만일 발생했을 때의 행정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정부와 도도부현 지사 등이 공유해야 할 정보에 대해 기재</li> </ul>
<p>시민상담·홍보 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급 감염증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유사증 환자가 한 명 이상 발생 시 언론보도 등에 대한 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관리 관점에서 시민상담·홍보체계의 내용을 충실</li> <li>· 도민 상담과 도민의 불안 해소를 위한 홍보체제에 대해 기재</li> </ul>
<p>이송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급 감염증은 都가 소유하는 전용 차량으로 도쿄 소방청, 보건소 등이 제휴하여 이송 업무를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송 업무의 재구축</li> <li>· 도쿄 소방청, 보건소 등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 및 업무 절차의 재검토</li> <li>· 기재의 재검토(아이솔레이터를 하드형에서 소프트형으로 변경)</li> <li>· 이송하는 환자의 거주지(주택·공동 주택 등)나 상황(자립 보행의 여부)에 따른 업무절차를 구체화</li> </ul>
<p>개인 의류 착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재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개인 의류 착탈의 철저</li> <li>· 2차 감염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 의류 착탈 시의 유의점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동시에 적절한 착탈 순서를 도해로 설명</li> </ul>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4/12/20ocg500.htm>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4/12/DATA/20ocg500.pdf>

## 환경·안전

### ‘테러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 대비’ 적응유연한 도시전략 수립

호주 멜버른市 / 환경·안전

- 호주 멜버른市는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의 100대 적응유연한 도시(100 Resilient Cities Networks)의 구성원으로서 ‘적응 유연한 멜버른 전략(Melbourne Resilience Strategy)’ 수립사업에 돌입함.
- 전략 수립과 실행을 책임질 적응유연 담당관(Chief Resilience Officer)이 공식적으로 임명되었으며, 빅토리아주 재난청(Emergency Management Victoria) 등을 포함한 주 정부 부처와 구청 단위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Resilience Steering Committee)가 별도로 구성되어 전략 수립 사업을 관리 감독할 예정임.
- 적응유연한 도시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충격에 직면하는 근대 도시들이 이를 예방하고 극복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결과적으로 장수(長壽)하는 도시로 정의될 수 있음.
  - 근대 도시들의 규모가 커지고 운영 시스템이 복잡화됨에 따라 도시들은 다양한 위험과 혼란을 겪고 있음. 도시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들이 확립해 온 대응 전략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기존 도시들은 주로 기후 변화의 위험에 대비한 환경 친화적 도시(sustainable city), 자연재해에 대한 재난대비 등 단일하거나 일부분의 위험요인에만 정책적 관심을 두어 왔음.
  - 더 큰 개념으로서 적응유연성이 대안적인 개념으로 제시됨. 적응유연성은 기존의 전통적인 재난 관리 접근법에서 벗어나 도시 재정, 테러, 그리고 질병 등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위험 요인들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포괄적이고 총체적인(holistic) 접근법으로서의 적응유연성 개념은 도시의 물

리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도시 문화, 사회적 관계망, 지식 등 시민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의 자산들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

- 市는 록펠러 재단에 의해 제시된 적응유연한 도시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적응유연한 멜버른 전략’을 수립할 예정임.
  - 적응유연한 도시 프레임워크는 건강 및 복지(사람), 경제 및 사회(조직), 기반 시설 및 환경(장소), 그리고 리더십 및 전략(지식) 등 크게 4가지 범주와 1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한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다고 해서 적응 유연한 도시로 평가되지 않으며, 강점 분야가 약점 분야를 적절히 보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적응유연한 도시의 특성임.

**적응 유연한 도시 프레임워크**

범주	지표	하위지표
건강 및 복지	인적 취약성 최소화	음식, 수도 및 위생, 에너지, 주택
	생계수단 다양화 및 고용 생활 및 건강 보호	생계 기회, 기술 및 훈련, 개발 및 혁신, 재정 지원 서비스 공공보건 관리, 지불 가능한 보건 서비스, 재난 시설 및 인력
경제 및 사회	집합적 정체성 및 상호 지지	지역사회 및 시민 참여, 사회적 관계 및 네트워크, 지역 정체성 및 문화, 통합적 지역사회
	사회적 안정성 및 보안	범죄 억제, 부정부패 감소, 치안 및 사회 정의, 법률 시행에 대한 접근성
	재정 자원 및 비상사태 대비 기금(contingency funds)	경제 구조, 투자 유치(inward investment), 주변국 및 국제 경제와의 연계, 산업 지속성 전략, 건전한 재정 관리
기반시설 및 환경	도시의 물리적 위험 및 취약성 감소	환경 정책, 재해 대비 핵심 기반 시설 보호, 건물 관리 규정 및 기준 구비
	핵심 서비스 지속성	생태계 관리, 홍수 위험 관리, 도시 기능관리 실천,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 측정, 도시 지속성 전략
	통신 및 이동성	통합 교통 네트워크, 정보 및 통신 기술, 재해 통신 서비스
리더십 및 전략	효과적인 리더십	민관 이해 관계자들 간의 협력, 정부 기관 간 협력, 효과적인 정부 의사결정 체계, 재난대비 능력 및 조정
	이해 관계자 능력 신장	연구, 지식 이전(transfer) 및 최적의 실천법 공유, 위험에 대한 대중 인식, 교육, 정부와 시민간의 의사소통
	통합 개발 전략	도시 기능 감시 및 데이터 구축, 전략 및 계획, 토지 이용 및 개발

- 예를 들어, 특정한 산업(자동차 산업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도시, 혹은 특정 위험(홍수 등)에 쉽게 노출되는 도시는 적응유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12개의 지표들은 적응유연성을 구체화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소위 도시 면역 체계(immune system)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있음.
- 멜버른市는 지난 2013년 록펠러 재단에 의해 첫 32개국의 적응유연한 도시 중의 하나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100대 적응유연한 도시 중의 하나로서 입지를 갖추고 있음. 멜버른市는 유사한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도시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최적의 실천 방법 및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음.

<http://www.melbourne.vic.gov.au/AboutCouncil/MediaReleases/Pages/MelbourneChiefResilienceOfficerappointed.aspx>

[http://publications.arup.com/Publications/C/City\\_Resilience\\_Framework.aspx](http://publications.arup.com/Publications/C/City_Resilience_Framework.aspx)

## 도시교통

### “여러 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을”

미국 / 도시교통



- “The High Cost of Free Parking”의 저자인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대학교

(UCLA)의 도널드 슈프(Donald Shoup) 교수는 개선된 주차시스템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해 역설함. 즉,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임. 이러한 편익을 얻기 위해 도널드 슈프 교수는 여러 도시에서 다양하게 활용 될 수 있는 주차 시스템을 제시함.

- 차량번호 기반 주차요금 정산 시스템

- 현재 많은 도시에서 기존의 주차미터링 시스템이 신용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키오스크로 교체되고 있음. 슈프 교수는 이러한 키오스크에 차량번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피츠버그市는 2012년부터 차량번호를 기반으로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키오스크를 도입하였음.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번호를 키오스크에 입력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후 바로 자신의 목적지로 갈 수 있음.
- 이전처럼 다시 차량에 돌아가서 영수증을 대시보드에 놓을 필요가 없음. 가장 큰 장점은 같은 차량이 같은 구역에 다시 주차를 했을 경우 이러한 결제 프로세스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음.
- 주차관리 및 단속에서도 차량 번호판을 스캔함으로써 아주 쉽게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통해 피츠버그市는 상당한 주차요금 수익을 얻고 있으며, 주차위반 횟수 역시 현격히 감소하고 있음.
- 차량 번호판을 기반으로 한 주차 요금 정산 시스템은 스마트폰 활용을 통해 이용이 더욱 쉬워졌음. 이에 따라 많은 이용자가 불법주차를 하는 대신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었음.

- 환경오염 영향을 고려한 주차요금 부과

- 친환경차량에 대한 지원 정책이 증가함에 따라 스페인의 마드리드市는 최근



차량의 환경오염 영향 정도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음.

- 이러한 주차요금 부과 방식은 차량번호판을 기반으로 하는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함께 도입이 가능하였음. 즉, 이용자는 주차요금 정산 시스템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차량 타입을 선택하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이 친환경차량일 경우 주차요금을 약 20% 할인받을 수 있음.
- 반대로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최대 20%의 추가 주차요금을 내야 함.

- 차량크기 기반 주차요금 부과

- 친환경차량이 주차요금 혜택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량크기에 따라 차등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편익을 가져올 수 있음. 도로변 주차의 경우 실제로 경차와 대형차가 차지하는 면적은 다르고 이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임.
- 슈프 교수는 차량 크기에 따라 최대 56%가 차등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차량 크기가 큰 운전자의 경우 좀 더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임.

TABLE 1  
Parking Discounts Based on Car Length

MAKE AND MODEL (in 2014) 1	LENGTH (feet) 2	DISCOUNT (percent) 3	FUEL EFFICIENCY (miles/gallon) 4	CO <sub>2</sub> EMISSIONS (grams/mile) 5
Rolls Royce Phantom	20.0	0%	14	637
Lincoln MKS	17.2	14%	22	400
Buick Regal	15.8	21%	24	371
Ford Fiesta	14.5	28%	29	301
Chevrolet Spark	12.1	40%	34	258
Scion iQ	10.0	50%	37	238
Smart	8.8	56%	36	243

차량별 주차요금

- 특별거주비율 적용

- 미국 마이애미 해변에서는 거주자(시간당 1달러)는 비거주자 혹은 여행객(시간당 1.75달러)보다 저렴한 주차요금을 납부함.

- 이것은 실제로 굉장히 불평등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거주자의 경우 이미 거주 지역에 도로나 주차시설 관리를 위한 세금을 직간접적으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등 요금 부과는 실제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임.
- 또한 이러한 차등 요금부과로 비거주자들의 차량운행 횟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 새로운 지역 서비스 제공

- 사실 주차요금 징수로 인한 수익이 전부 도시의 수익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실제로 주차요금 징수로 인한 수익은 다시 주차시설 및 도로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재투자됨. 실제로 몇 년 전 캘리포니아의 벤투라市에서는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음.
- 하지만 최근에는 주차요금 징수로 얻은 수익으로 지역도로 관리와 공공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이러한 사례를 통해 비록 소매상들은 본인들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주차요금 부과를 꺼리지만, 좋은 의지를 가진 정책을 통해 오히려 좀 더 나은 공공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줌.

<http://www.citylab.com/cityfixer/2014/12/5-parking-innovations-every-city-should-adopt/383603/>

## 정보·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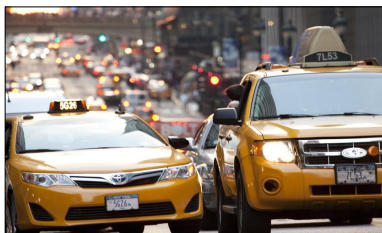
###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미국 뉴욕市 / 정보·기타

-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콜택시 우버(Uber)와 리프트(Lyft)는 스마트도시의 추세를 따른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의 택시 시스템과 경쟁관계에 있어 많

은 대립을 보이고 있음. 뉴욕시는 우버와 리프트가 제공하는 시스템과 비슷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힘. 이 서비스는 기존 1만 9천대의 택시와 더불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우버 및 리프트 이용차량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힘.

- 뉴욕시의 입장은 우버와 리프트 등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법적으로 제약을 하기보다 기존의 택시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려는 데 있음.
  - 이에 따라, 2014년 12월에 뉴욕시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입법을 예고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가진 후 빌 디 블라소(Bill de Blasio) 시장의 최종 승인을 기다릴 예정임.
  - 이러한 변화는 미국 전역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시카고 및 워싱턴 D.C. 등의 도시에서도 우버나 리프트를 제한하기보다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비슷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준비 중이며 뉴멕시코주의 산타페市에서는 시의 규제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기도 함.
  - 이러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해가고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 이번 입법을 준비한 뉴욕시의회 벤 칼로(Ben Kallo) 의원의 입장임.
- 지난 7월에 서울시가 우버를 불법 택시로 규정하는 등 세계 각 도시에서 우버와 리프트, 그리고 그들을 막으려는 택시 회사와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시보다 이용하기 편리하고 서비스 품질도 좋은 편임. 그렇기 때문에 뉴욕시 등 여러 도시의 해결방안을 다양한 방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뉴욕시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모습



차량 공유 시스템인 우버를 반대하는 광고의 모습

<http://www.govtech.com/transportation/NYC-Considers-Taxi-App-to-Compete-with-Uber-and-Lyft.html>

<http://nypost.com/2014/05/15/taxi-e-hail-apps-a-hit-with-riders/>

[http://www.govtech.com/applications/Santa-Fe-Judge-Declines-to-Shut-Down-Lyft.html?utm\\_source=related&utm\\_medium=direct&utm\\_campaign=Santa-Fe-Judge-Declines-to-Shut-Down-Lyft](http://www.govtech.com/applications/Santa-Fe-Judge-Declines-to-Shut-Down-Lyft.html?utm_source=related&utm_medium=direct&utm_campaign=Santa-Fe-Judge-Declines-to-Shut-Down-Lyft)